

KWDI

해외통신

2020년 11월 2차 (2020.11.16 ~ 11.3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여성 전용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위해 정책 재검토

황수영 브리스톨 대학교 공공정책 석사

영국 정부가 여성 전용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 등을 포함해 공중화장실 정책을 재검토한다. 최근 몇 년간 영국에서 성 소수자를 비롯해 남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성 중립 화장실(gender neutral toilet) 설치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여성 전용 화장실 숫자가 줄어 여성의 화장실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다.

담당 부처인 주택공동체지방정부(Ministry of Housing, Community & Local Government)는 10월 3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공중화장실을 성 중립 화장실로 개조하면서 여성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생리 종이거나 임신, 폐경을 겪는 여성들은 여러 이유로 여성 전용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을 수 있으나 성 중립 화장실은 이러한 여성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며 화장실 정책을 재검토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정책 검토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항상 칸막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남성 화장실 대비 여성 화장실 비율이 적절한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정책 재검토는 화장실 정책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내년 1월까지 수렴한 뒤 이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식으로 진행된다.

영국에서 성 중립 화장실 설치가 논란이 된 이유는 간단하다. 남성용 소변기가 있는 성 중립 화장실 숫자가 증가하면서 역으로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남녀 화장실 분쟁의 대표적인 예가 2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런던의 올드빅 극장(Old Vic Theatre)의 화장실 개조 사건이다. 지난해 올드빅 극장은 시민 모금으로 마련한 10만 파운드(우리 돈 약 1억 5천만 원)를 투입해 기존 남녀 화장실을 모두 성 중립 화장실로 개조했다. 원래 의도는 성 소수자들을 포함해 남녀 모두 편하게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자는 것이었지만, 의도와는 다른 일이 벌어졌다. 전체 화장실에 칸막이와 소변기를 동시에 설치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여성들은 남성용 소변기를 제외한 칸막이 화장실 24곳을 이용할 수 있지만, 남성들은 칸막이를 포함해 화장실 42곳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여성이 더 오래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올드 빅 극장은 남성과 같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한 여성이 여성 전용 화장실 사용할 선택권을 없앴다는 비판까지 감수해야 했다.

참고자료

- GOV.UK(2020.10.31.), “Government review to boost the provision of toilets for women and men”,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review-to-boost-the-provision-of-toilets-for-women-and-men> (접속일: 2020.11.10.)
- GOV.UK(2020.10.31.), “Toilet provision for men and women: call for evidence”,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toilet-provision-for-men-and-women-call-for-evidence> (접속일: 2020.11.10.)
- Independent(2019. 10.2.), “Old Vic theatre replaces single-sex toilets with inclusive facilities for all genders”, <https://www.independent.co.uk/life-style/old-vic-gender-neutral-toilets-pictures-single-sex-male-female-a9129016.html> (접속일: 2020.11.10.)
- The Guardian(2019.11.14.), “The queue for women’s toilets is a feminist issue”,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9/nov/14/queue-ladies-loo-feminist-issue-public-toilets> (접속일: 2020.11.10.)

- 페미니스트들은 공중화장실 설계가 여성의 화장실 이용 습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영국 여성 인권활동가이자 작가인 캐롤라인 크리아도 페레스는 ‘Invisible Women: Exposing Data Bias in a World Designed for Men’이라는 책에서 남녀 화장실 숫자를 똑같이 한다고 해도 여성 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서는 줄을 없애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페레스는 책에서 여성의 화장실 이용 시간이 남성보다 평균 2.3배가량 높아서 공공시설에 여성 화장실 숫자가 남성 화장실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성 인구의 노인과 장애인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다는 점, 돌봄 노동을 도맡아 하는 여성이 아이나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를 데리고 화장실에 갈 가능성이 남성보다 크다는 점, 가임기 여성이 월경을 겪으면 생리용품을 교체하는데 시간이 길어져 소변을 보더라도 남성보다 화장실 사용 시간이 길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 로버트 젠릭 주택공동체지방정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최근 많은 여성들과 노인들이 공중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GERMANY



독일, 심각한 여성살해(Femicide) 문제에 대한 지원대책 고심

채혜원 독일통신원

- 독일 내에서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살해) 문제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독일 언론 도이치벨레(DW) 보도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는 3일에 한번꼴로 여성이 현재 남성 파트너나 전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고 있다. 지난해 독일에서 119명의 여성이 살해당했고, 2018년에는 독일의 여성살해 건수가 유럽연합 국가 중 가장 많았다. 매해 현재 파트너이거나 전 파트너 남성에게 살인뿐만 아니라 신체 상해, 성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를 당하는 여성은 13만 명에 이른다.
- 헤센주 내무부의 범죄예방부서를 이끌고 있는 줄리아 세퍼는 ‘도이치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프랑크푸르트에서 발생한 여성살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32세 의사였던 피해자는 전 파트너에게 칼로 18번 찔려 사망했는데, 그는 이 사건이 불행하게도 전형적인 여성살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는 전 파트너인 가해자를 떠났고 이후 가해자는 지속해서 피해자를 찾아와 위협하고 학대했다. 피해자는 경찰을 찾아가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를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살해했다. 줄리아 세퍼 검사는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해는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는 모욕과 수모, 경제적 압박으로 시작해 수년간 이어진 폭력의 결과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DW(2020.11.10.), “Germany sees high numbers in femicide”, <https://www.dw.com/en/germany-sees-high-numbers-in-femicide/a-55555702> (접속일: 2020.11.20.)
- Council of Europe(2020.8.31.), “Istanbul Convention Action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and domestic violence”, <https://www.coe.int/en/web/istanbul-convention/germany> (접속일: 2020.11.24.)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2020), <https://www.bmfsfj.de> (접속일: 2020.11.18.)

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는 살인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독일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형량이 문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프랑크푸르트 살해 사건과 유사한 많은 사건에서 독일 법원은 최대 10년형인 과실치사로 사건을 마무리한다고 지적했다. 독일여성변호사협회(Deutscher Juristinnenbund)의 레오니 슈타인은 “대부분 피해자는 가해자가 결정한 삶에 따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살해당하고 있으며 이는 젠더에 기반한 불평등의 결과이다”라며 “이것이 바로 젠더로 인한 죽음인 페미사이드, 즉 여성살해의 정의”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변호사협회 회원들은 남성이 자신을 떠났거나 자신을 떠나가고 싶어해서 이전 또는 현재 파트너인 여성을 죽이는 경우는 ‘살인’으로 간주돼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여성변호사협회 회원들은 독일에서 여성살해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많은 이들이 여전히 ‘페미사이드’란 용어를 들어본 적 없거나 여성이 납치, 강간, 살해되는 것이 멕시코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여성 살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거리로 나왔지만, 아직도 독일에서는 큰 문제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여성살해 범죄에 대한 독일 언론 매체의 보도 행태를 비난했다. 이들에 따르면 독일 매체는 정기적으로 살인 사건을 선정적이고 낭만적으로 다루며 ‘열정의 범죄’, ‘사랑의 비극’ 또는 ‘가족 비극’이라는 잘못된 단어를 사용해 여성 살해 사건을 다룬다. 독일 비영리 여성단체 테르데팜므(Terre des Femmes)의 바네사 벨은 “매체에서 사용하는 이런 잘못된 문구는 대중이 여성살해 사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페미사이드가 독일 사회 문제가 아니라 사적인 문제로 잘못 인식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일에서 여성살해가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여성살해 사건 통계에는 가해자가 기소되었거나 유죄판결 받은 사례만 속하고, 실제 발생하는 살해 사건은 훨씬 많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2014년 유럽연합 연구에 따르면, 가정 폭력 사건의 1/3만이 경찰에 신고되었다.

이와 함께 활동가들은 ‘이스탄불 협약’ 발효와 관련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스탄불 협약’은 여성폭력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포함한 유럽 내 첫 공통기준이다. 가입국은 협약에 따라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근절하는 데 필요한 법안과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하며, 포괄적인 정책과 여러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서명 이후 협약 비준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 2018년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피해자를 위한 심리적 및 법적 보호 확대, 피해 여성 쉼터 마련, 국가 인식 캠페인 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보고해야 한다.

한편 여성폭력 문제와 관련해 독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년간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주거공간인 ‘여성의 집(Frauenhäuser)’과 전문 상담소의 지원을 확대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1억 2천만 유로(한화 약 1,555억 원) 예산을 편성했다. 현재 독일에는 총 353개 ‘여성의 집’과 약 40개의 임시 주거시설이 있으며, 매년 약 3만여 명의 여성이 이곳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 내 만연한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회원국의 정책 대응 촉구

박 서 회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 사회학연구기관 국제개발학 박사과정

- 2020년 11월 6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남녀 임금격차 문제에 대한 최근 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럽연합 27개국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 평균 수치는 2020년 14.1%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14.5%에서 아주 근소한 수준에서 개선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유럽연합에서는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자 매년 유럽 동일임금의 날(European Equal Pay Day)을 기념하고 있다. 2020년은 11월 10일로, 남녀 임금격차 비율 14.1%를 달력상 날짜로 환산하면 이날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내 여성들은 올해 마지막일 까지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셈이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측의 설명에 따르면, 남녀 임금격차 문제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엮여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이 대개 파트타임으로 일한다는 점, 기업에서는 유리천장을 맞닥뜨리게 되는 점, 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저임금 직종에 종사한다는 점, 많은 여성들이 가족 돌봄과 육아를 주로 담당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 회원국 중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적은 국가들은 룩셈부르크(1.4%), 루마니아(2.2%), 이탈리아(3.9%)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격차 비율이 가장 큰 국가는 에스토니아(21.8%), 오스트리아(20.4%), 독일(20.1%)로 나타났다.
- 유럽노동조합연합(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에서 지난달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임금격차 개선 속도 그리고 더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유럽 연합의 남녀 임금격차 문제는 2104년 정도가 돼야 해결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남녀 임금격차 비율이 가장 큰 국가 중 하나인 독일의 경우 2121년이 되어서야 임금이 동일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 심지어 프랑스의 경우 그동안 성별 임금격차가 개선된 정도가 매우 느렸으며, 그 수치가 2010년 이후 약 0.1%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유럽노동조합연합(ETUC)은 이런 속도라면 프랑스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임금을 받으려면 무려 천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유럽연합이 회원국 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동일 직급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현상은 용납될 수 없으며 약 64%가량이 회사에서 직종 및 성별 평균 임금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약 26% 정도의 응답자만이 본인의 국가에서 남녀 동일 직급 동일 임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¹⁾
- 올해 동일 임금의 날을 기념하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측은 “그동안 유럽연합은 남녀 임금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아직 개선 속도가 느리고, 임금에서의 성차별과 성별 고정관념 철폐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성이 일하든, 여성이 일하든, 그 일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Euronews(2020.10.06.),
“EU gender pay gap won't be closed until 2104, new report says”,
<https://www.euronews.com/2020/10/06/eu-gender-pay-gap-won-t-be-closed-until-2104-new-report-says>
(접속일: 2020.11.22.)
- EU Observer(2020.11.11.),
“Investors target French companies over lack of women in top jobs”,
<https://euobserver.com/social/149644>
(접속일: 2020.11.22.)
- European Commission
(2020.11.06.),
“Equal Pay Day: Statement by Vice-President Jourová and Commissioners Schmit and Dalli”,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STATEMENT_20_2010
(접속일: 2020.11.22.)
- 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2020.10.05.),
“EU gender pay gap won't end until 2104 without action”,
<https://www.etuc.org/en/pressrelease/eu-gender-pay-gap-wont-end-until-2104-without-action>
(접속일: 2020.11.22.)
- The Local(2020.11.04.),
“Why women in France are now working for ‘free’”,
<https://www.thelocal.fr/20201104/why-women-in-france-are-now-working-for-free>
(접속일: 2020.11.22.)

이번 발표 이후, 유럽연합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지 주목할 만 하다. 또한 회원국별로 남녀 임금격차 비율과 개선 속도가 상이한 만큼, 회원국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설문조사는 2017년 11월 발표된 Special Eurobarometer 465-Gender Equality 2017: Gender Pay Gap을 지칭 하며, 해당 설문조사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당시 영국 포함) 총 28,093명을 대상으로 함.

캐나다 CANADA



캐나다, 연방경찰 내 심각한 직장 성희롱·성차별 피해에 대해 적극 개선노력 밝혀

김양숙 캐나다 토론토대학 사회학 박사과정

2020년 11월 11일 캐나다 왕립 기마경찰대(RCMP: Royal Canada Mountain Police, 이하 연방경찰) 내의 여성혐오, 성차별적인 문화가 피해 여성들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한 조사 보고서 “깨진 꿈, 깨진 삶(Broken Dreams, Broken Lives)”이 공개되었다. 이 보고서는 2016년에 연방 경찰에 근무하며 성차별, 성폭력 등의 피해를 겪은 수천 명의 여성에게 국가가 금전적 보상을 명한 ‘멀로-데이비슨 결정(Merlo-Davison settlement)’ 이후 4년 만에 당시 사건의 원인과 피해를 심층적으로 보고한 자료이다.

이 조사는 연방경찰이 전직 고등법원 판사 미셸 바스타하시(Michel Bastarache)에게 독립적인 사건 조사를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2016년 멀로-데이비슨 결정 후 저자가 3년 이상 전국을 돌며 피해자들을 만나 조사를 진행했다. 멀로-데이비슨은 당시 집단소송을 주도한 전직 연방경찰 피해 여성들의 이름이며, 당시 접수된 피해 내용 들에는 상사와 성적 관계를 거부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불만을 호소했다는 이유로 업무 제외, 특정 임무-예컨대 잠복이나 특수 수사팀 등-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제외 혹은 희롱, 직장 내 강간, 경멸적인 언어, 성적인 농담, 성 소수자들에 대한 아우팅(being outed) 등이 있었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연방경찰에서 근무 중 성희롱, 성 지향성 때문에 차별을 당한 여성들에 대한 피해 보상 평가에 있어서 피해의 정도를 여섯 단계로 나누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였는데, 1차 평가에서 피해 정도가 레벨3 이상인 여성들은 평가 의원과 인터뷰 시행하였고, 총 접수된 3,086 피해 사례 중에서 2,304의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았고 644건의 인터뷰가 시행되었다. 이 사건으로 연방정부는 1억 2,540만 캐나다 달러(약 1,068억 원)의 피해 보상액을 포함한 1억 3,740만 캐나다 달러(약 1,170억 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참고자료

- CTV News(2020.11.19.), “RCMP vows reform after report details ‘toxic’ and hateful culture within the force”, <https://www.ctvnews.ca/politics/rcmp-vows-reform-after-report-details-toxic-and-hateful-culture-within-the-force-1.5195954> (접속일: 2020.11.20.)
- Merlo Davidson Settlement Agreement(2020.11.11.), “Broken Dreams Broken Lives: The Devastating Effects of Sexual Harassment on Women in the RCMP”, https://merlodavidson.ca/wp-content/uploads/RCMP_Final-Report_Broken-Dreams.pdf (접속일: 2020.11.20.)
- RCMP(2020.11.19.), “RCMP response to the report of the Independent Assessors regarding the claims made under the Merlo/Davidson settlement agreement”, <https://www.rcmp-grc.gc.ca/en/rcmp-response-the-report-the-independent-assessors-the-claims-made-the-merlodavidson-settlement?fe%20> (접속일: 2020.11.20.)

이 보고서에서 저자는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성희롱, 차별 등의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당시 집단소송에 참여했던 피해 여성 다수가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 남용, 불안증 등의 정신적 피해 호소하고 있었고, 이들 중 한 명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했었다. 저자는 지난 수년간 여러 차례의 경찰 자체 조사와 보고서, 법정 공방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직의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독소적인 문화(toxic culture)가 조직 내에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연방경찰 내에는 여성 혐오(misogynistic), 인종차별, 동성애 혐오의 문화가 여전히 건재하며 경찰 구성원들은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러한 문화에 순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 구성원들은 소수 타인을 탓할 뿐 그러한 독소적인 문화에 순응하는 자신들 또한 그 문화를 정당화하고 제도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저자는 현재의 경찰 조직 구조가 과연 이러한 독소적 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만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매우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소송이나 이를 통한 보상은 문제의 표면만을 다룰 뿐 이 독소적인 문화를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바, 중앙으로부터의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자는 여성들을 경찰에서 성공 방해하는 요소들을 특정하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외부로부터의 독립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교육, 채용, 채용 공고, 인사 등 전반에 걸친 52개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19일 캐나다의 트뤼도 수상은 이에 대해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18년 정부가 캐나다 역사 최초의 여성 연방 경찰청장(Commissioner Brenda Lucki)을 임명할 때 정부가 그녀에게 부여한 주요한 임무는 경찰 내부의 이러한 문화를 바꾸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트뤼도 수상은 또한 경찰이 그 조직의 구성원들을 희롱과 차별로부터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캐나다 시민들이 경찰의 법 집행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면서 RCMP를 개혁하기 위한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캐나다 공중안전부 장관(Public Safety Minister Bill Blair) 또한 성명을 통해 일터에서 누구나 차별이나 희롱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차별이나 희롱을 당하는 것이 많은 여성과 성 소수자들이 경찰 내에서 일상이라면서 경찰 내에서의 가학적인 행위가 조직화되어 있는 것(systemic patterns of abusive behaviour)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연방경찰 또한 19일 이 보고서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연방경찰의 공식 성명은 직장 내 차별과 폭력에 맞서 나선 여성들의 용기를 언급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경찰이 현재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희롱 사건 접수 및 처리를 일원화하고 효율화하였으며 현재 육아 휴가의 사용 및 원활한 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구성원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질 전문적인 팀을 런칭할 계획, 경찰 모집 과정을 현대화하여 경찰 내에 다양성을 높일 계획 등을 구체화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방경찰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 또한 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독소적 문화를 경험한 바 있다고 하면서 경찰이 여성 구성원들을 실망하게 한 것에 분노를 표하면서도 거듭 사과했다.